http://dx.doi.org/10.5392/JKCA.2016.16.12.539

방송 뉴스의 재난보도 콘텐츠에 대한 분석: 지상파 3사와 JTBC의 세월호 참사 보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isaster News Contents on TV News Programs: Three Network TVs and JTBC's News Coverage of Sewol Ferry Disaster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Jinbong Choi(choi0126@gmail.com)

요약

세월호 참사보도는 오보와 왜곡·축소 보도, 그리고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보도 등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 재난보도가 지니는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주류 방송사인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난보도가 지켜야 하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미흡함을 보였으며, 언론이 재난보도 과정에서 지양해야 하는 선정성과 오보 양산 등 재난보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TBC의 경우 주류 방송사들의 보도와 달리 재난보도 과정에서 사건 발생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세월호 보도 | 재난보도 | 보도분석 | 내용분석 |

Abstract

The news coverage of Sewol Ferry catastrophe has reprimanded from numbers of people because of false reports and mediamorphosis such as distorted new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ws coverage of television news programs about the Sewol Ferry catastrophe. Specific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problems with the disaster news reports of several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KBS, MBC, SBS and JTBC. Furthermore, the study also explores about how they reported without following the rules of disaster news coverage and policy of disaster news coverage by content analysis.

■ keyword : | News Coverage of Sewol Ferry | Disaster Coverage | Media Coverage Analysis | Content Analysis |

I. 서 론

지난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 승객 총 476명을 실은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아침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는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후, 이틀만인 4월 18일 11시 50분 경 완전히

접수일자 : 2016년 08월 22일
수정일자 : 2016년 09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10월 02일
교신저자 : 최진봉, e-mail : choi0126@gmail.com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승무원 23명과 단원고 학생 75명, 단원고 교사 3명, 그리고 일반인 71명을 포함해 총 172명이 구조된 가운데 정부는 2014년 11월 11일 209일간의 수색작업을 공식 종료했다. 구조된 172명을 제외하고, 사망이 확인된 희생자는 295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현재까지 9명에 대해서는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 중 약 88%인 261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이었다.

이번 사고는 승객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해운회사의 무리한 여객선 운항, 사고 직후 승객들을 선박에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사고 수습과 처리에 우왕좌왕한 해경과 관계당국의 무능한 대처, 탑승객 및 구조된 인명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의 부실한 대응 등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당국의 부실한 사고대처와 이익에 눈이 먼 해운업체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온갖 오보와 왜곡·축소 보도, 그리고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보도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할 언론이 자극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실수를 저질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경 언론은 일제히 세월호에 타고 있던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전원이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뉴스는 명백한 오보였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속보경쟁에 쫓겨 부정확한 정보를 보도함으로써 전 국민을 상대로 오보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엄청난 오보로 인해 언론보도만을 믿고 자신의 자녀들이 구조 되었다는 기쁨에 빠져있던 실종자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안겨 주었다. 언론의 대형 오보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언론사들은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오보를 하게 되었다며 자신들이 당연히 했어야할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중앙사고대책본부에 떠 넘겼다. 일부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4월 17일자에 사과문을 내 보내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언론이 속보경쟁에 빠져 정부 발표를 너무 쉽게 믿고 자체 확인과 추가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보도해서 발생한 '오보참사'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던 언론사들은 사상자들의 보상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보도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과 영상을 보도해 대형 참사로 인해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분노케 하는 보도태도를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기자들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로 불렸고, 대한민국 언론은 국민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요 방송사들이 어떤 정보원을 주로 사용했으며, 어떤 단어와 주제를 보도에 사용 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재난보도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기존 문헌 연구

1. 재난보도 준칙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등의 예방, 수습과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할 것과 공동취재단이 제작한 자료를 다른 방송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통해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은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실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고시 제7조(재난방송 등의 준칙)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함에 있어 첫째,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과 둘째,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 재난수습 및 복구상황은 물론 이재민 등 피해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각 방송사업자 별로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야 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조(사생활 보호)는 재난방송을 실시함에 있어 지켜야 할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 등 취재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보도 시 준수해야 하는 여러 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난관련 언론보도는 현장을 왜곡하거나 속보전달에만 치우쳐 뉴스의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등의 소중한 가치를 경시해 왔다[1-4].

특히, 재난보도는 인명구조와 재난 수습 및 복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 또는 공포감을 주지 않도록 이재민 등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배려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보도 준칙이 마련되고 고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양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세월호 보도에 관한 기존 연구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보도에 대한 1년간의 주된 논의는 국내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이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인 공정보도, 사실보도, 탐사보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5-14].

김서중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된 규제완화 정책의 대표적인 결과를 세월호 참사로 언급하며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15]. 언론은 참사 이후 정치적으로 장악된 언론이 보여준 경호견 역할이나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저열한 보도였으며, 방송의 공공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인 사회적 감시견의 행태와 탐사적 취재를 기반으로 한 사실의 명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대안의 제시와 같은 보도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진로는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으로 언론의 오보, 추측보도, 사고 피해 관련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인터뷰, 선정적 보도, 정파적 보도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16]. 더불어 세월호 참사보도는 대부분의 국내 언론이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분량을 보도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녔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고 직후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이 뉴스특보체제로 전환하여 다량의 정보를 쏟아 냈지만 속보와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졌고 보다 자극적이고 추측성이 가득한 보도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최진봉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오보가 난무하고, 이러한 보도 행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사회 여론형성의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17]. 한수경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다양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통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18]. 그 중 언론의 비윤리적 행태와 '받아쓰기' 소통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오보와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언론의 비판적인 역할과 공적책무는 찾아 볼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창호는 이러한 세월호 보도의 오보가 SNS로 다양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19].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정보와 괴담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SNS의 부정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임원희와 신진원은 세월호 보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임원희의 연구는 KBS, MBC, SBS의 지상파 3사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건수, 보도유형을 분석하여 뉴스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20]. 더불어, 보도의 취재원과 핵심주제 유형을 분석하여 뉴스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로는 르포와 스케치, 스트레이트성 리포트가 많아 단편적이고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가 주를 이루었고, 취재원 사용에 있어서도 생존자와 가족, 유관기관, 중앙정부 비중이 높아 전문가를 통한 사고원인과 구조대책 보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보도들이 속보경쟁에만 집중했을 뿐,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는 재난방송의 보도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을 신속히 보도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언론의 역할을 지향하지 못하고 단발성 단편보도에 치중되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월호 보도에서 언론이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저널리즘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위주의 개인적 문제에 집중하며, 정부발표와 보도 자료에 의존한 보도 행태는 재난보도에 있어서의 국내 언론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21]. 한편, 신진원은 세월호 참사의 신문 사설에 주목한 바 있다[22]. 신문사설 텍스트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텍스트 생산자를 비롯하여 그 사회의 관점을 파악가능하다고 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 신문의 사설을 비교분석했다. 세월호 참사의 한미 신문사설을 분석한 결과, 한국 신문은 사건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평가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에 초점을 두었다면, 미국신문은 외부 관찰자 시점으로 보다 큰 맥락에서 사건의 반응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설은 보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단언적인 입장으로 전개되었고, 미국사설은 사건을 둘러싼 현상들을 객관적 태도로 기술하는 방식이 강했다고 밝혔다[23].

최근의 연구라 할 수 있는 박경우는 독자들이 인식하는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프레임과 매체 프로임 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24]. 독자들은 재난의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매체 프레임의 구조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반응과 대응이 가장 높은 현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25].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 언론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보도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취재과정을 통해 보도하는 탐사보도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방송매체들이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원을 주로 활용했는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 프레임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세월호 사건 보도를 계기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신뢰도는 하락하였고, 종편 방송인 JTBC의 신뢰도는 높아졌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세월호 참사 보도과정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JTBC는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6]. 따라서 본 연구는 KBS와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인 SBS, 그리고 종편 방송사인 JTBC가 세월호 관련 보도에 어떤 보도태도를 보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방송사별 세월호 관련 보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사의 바람직한 재난보도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도 기사의 분량은 방송사별로, 그리고 날짜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방송사들은 세월호 사건을 보도할 때 주로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방송사들은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 어떤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4> 세월호 사건을 보도할 때 방송사들이 주로 사용한 핵심 단어는 무엇이고, 방송사들이 사용한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방송사별 뉴스를 분석하여 각 방송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방송사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사들이 취재 과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정보원은 누구인지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방송 뉴스의 보도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요 방송사인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편 방송사 중에서 JTBC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방송사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이들 4개 방송사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 <JTBC 뉴스9>을 분석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종편 4개사 중에 JTBC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JTBC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연속 보도'가 제46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세월호 사건 보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언론사의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에서 JTBC가 가장 신뢰도와 유용성이 높은 방송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27].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경우, 최근 들어 신뢰도 및 영향력이 떨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꼽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28].

본 연구는 방송사의 세월호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대상 기간을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10일 동안으로 정했다. 분석 기간을 사건 발생부터 10일 간으로 정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에 방송사별로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편성해 보도하는 등 세월호 사건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후부터 관련 기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에 방송된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 기사 대상으로 '세월호'라는 단어를 이용해 검색을 실시하여 검색결과를 통해 수집된 기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 분석방법

분석 방법은 분석 대상으로 수집된 세월호 관련 보도 기사들의 보도 경향과 보도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도 날짜, 정보원, 보도 주제, 주요단어, 책임소재 등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먼저 분석을 위해 수집된 세월호 관련 기사들을 보도 날짜별로 분류하고, 기자들이 세월호 관련 기사를 취재할 때 어떤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세월호 기사의 '정보원' 분석은 기계적/비기계적,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는데,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은 기사들은 '기계적'으로, 현장 취재, 인터뷰 등으로 정보를 얻은 기사들은 '비기계적'으로 분류 하였다. 이와 함께, 해경, 정부, 중앙사고대책본부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정보를 얻은 기사들은 '공식적'으로, 실종자 가족, 전문가, 시민 등 비 공식적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작성한 기사들은 '비공식적'으로 분류 하였다.

각각의 기사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의 주제를 분석하였고, 기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핵심적인 단어,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구분하여 '주요 단어'로 분석 하였다. 또한, 세월호 관련 기사들이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책임소재 대상으로 정부, 청해진 해운,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경, 한국선급, 진도 VTS, SNS 및 인터넷, 해운조합, 현장상황 등 9개 대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원의 유형과 핵심단어, 책임소재 대상의 유목은 기존 재난보도의 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한 바 있는 문헌들을 참고하여 세월호 보도 내용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29-31].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방송사별로 가장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던 날은 언제인지, 세월호 관련 기사들이 어떤 경로로 얻은 정보를 주로 사용했는지, 어떤 단어와 주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두 명의 코더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홀스티 지수를 활용해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코더 간 신뢰도 수치가 .89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

1. 세월호 보도의 일반적 특성

먼저, 분석기간(4월 16일~25일) 열흘 동안 분석대상인 <KBS 뉴스9>, <MBC뉴스데스크>, <SBS 8 뉴스>, <JTBC 뉴스9> 방송사 메인 뉴스의 보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4월 18일에 149건으로 세월호 관련 보도 건수가 가장 많았고, 17일(147건), 19일(140건), 20일(134건) 순으로 보도 기사가 많았다. 보도 건수를 통해 전반적인 보도 추이를 살펴보면, 사고 발생 5일째인 4월 21일부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그림 1][표 1].

표 1. 방송사별 세월호 보도 건수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JTBC	
보도일자	4월16일	건수	29	21	32	20	102
		%	8.2%	8.2%	12.2%	8.7%	9.2%
	4월17일	건수	48	35	35	29	147
		%	13.6%	13.7%	13.4%	12.6%	13.3%
	4월18일	건수	46	34	39	30	149
		%	13.0%	13.3%	14.9%	13.0%	13.5%
	4월19일	건수	45	35	37	23	140
		%	12.7%	13.7%	14.1%	10.0%	12.7%
	4월20일	건수	49	31	31	23	134
		%	13.8%	12.1%	11.8%	10.0%	12.1%
	4월21일	건수	29	34	21	24	108
		%	8.2%	13.3%	8.0%	10.4%	9.8%
	4월22일	건수	27	26	22	20	95
		%	7.6%	10.2%	8.4%	8.7%	8.6%
	4월23일	건수	29	14	17	24	84
		%	8.2%	5.5%	6.5%	10.4%	7.6%
	4월24일	건수	27	11	16	20	74
		%	7.6%	4.3%	6.1%	8.7%	6.7%
	4월25일	건수	25	15	12	18	70
		%	7.1%	5.9%	4.6%	7.8%	6.3%
전체		건수	354	256	262	231	1103
		%	100%	100%	100%	100%	100

n.s(x^2 =24.870, df=27, p=.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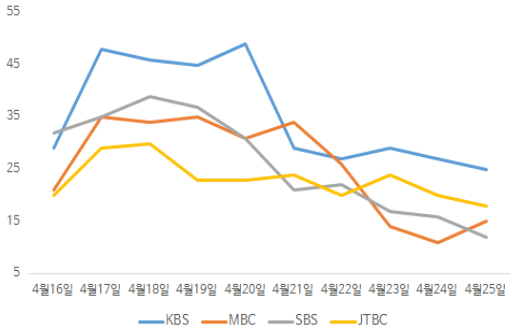

그림 1. 세월호 보도의 건수

분석기간 중 방송사별 보도건수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도일자에 따른 보도횟수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대상이 된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 당일을 포함해 나흘(4월 16일-4월 20일)동안 전체 분석기간 중 과반인 60.9%의 보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4월 21일 이후 지상파 3사의 세월호 관련 뉴스 보도건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JTBC의

경우 분석기간인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보도건수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월호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

세월호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방송사가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활용한 정보원과 세월호 사건의 책임 대상에 대한 보도 태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방송사별 정보원(공식적/비공식적)의 활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해경, 중앙사고대책본부 등 공식적인 기관에서 정보를 인용한 보도(19.9%)에 비해, 실종자 가족, 전문가, 시민 등을 비공식적 정보원을 활용한 보도(80.1%)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러한 경향은 방송사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방송사별 정보원 활용(공식/비공식적) 차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χ^2=34.186, df=3,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KBS와 SBS 메인 뉴스에서는 공식적인 정보원을 활용한 뉴스가 MBC와 JTBC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 방송사별 정보원(공식/비공식적) 활용 차이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JTBC	
정보원 분류	공식적	건수	86	29	74	30	219
		%	24.3%	11.3%	28.2%	13.1%	19.9%
	비공식적	건수	268	227	188	199	882
		%	75.7%	88.7%	71.8%	86.9%	80.1%
전체		건수	354	256	262	229	1101
		%	100%	100%	100%	100%	100%

(χ^2 =34.186, df=3, p<.001)

둘째,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은 기사들은 '기계적'으로, 현장 취재, 인터뷰 등으로 정보를 얻은 기사들은 '비기계적'으로 분류한 정보원 활용에 대한 방송사별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방송사별 정보원(기계적/비기계적) 활용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대상 4개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대부분 비기계적 정보원 즉, 현장 취재,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보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표 3. 방송사별 정보원(기계적/비기계적) 활용 차이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JTBC	
정보원 분류	기계적	빈도	19	7	14	16	56
		%	5.4%	2.7%	5.3%	7.0%	5.1%
	비기계적	빈도	335	249	248	213	1045
		%	94.6%	97.3%	94.7%	93.0%	94.9%
전체		빈도	354	256	262	229	1101
		%	100%	100%	100%	100%	100%

n.s(χ^2 =4.741, df=,3 p=.192)

이와 함께, <연구문제 3>에서 제시한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한 각 방송사별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를 밝힌 보도 전체 535건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연구대상 방송 4사는 선원(29.9%), 청해진(29.3%), 정부(16.3%) 등의 순으로 세월호 참사 발생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다[표 4].

표 4. 방송사별 세월호 사건 책임소재에 대한 보도태도 차이

구분			방송사				전체
			KBS	MBC	SBS	JTBC	
책임소재	정부	빈도	16	15	21	35	87
		%	9.6%	13.0%	17.4%	26.5%	16.3%
	청해진	빈도	62	37	24	34	157
		%	37.1%	32.2%	19.8%	25.8%	29.3%
	선원	빈도	42	52	39	27	160
		%	25.1%	45.2%	32.2%	20.5%	29.9%
	해경	빈도	7	3	7	18	35
		%	4.2%	2.6%	5.8%	13.6%	6.5%
	한국선급	빈도	5	2	1	3	11
		%	3.0%	1.7%	.8%	2.3%	2.1%
	진도관제센터	빈도	8	0	3	4	15
		%	4.8%	.0%	2.5%	3.0%	2.8%
	인터넷, SNS	빈도	7	3	9	4	23
		%	4.2%	2.6%	7.4%	3.0%	4.3%
	해운조합	빈도	4	2	4	4	14
		%	2.4%	1.7%	3.3%	3.0%	2.6%
	현장상황	빈도	16	1	13	3	33
		%	9.6%	.9%	10.7%	2.3%	6.2%
전체		빈도	167	115	121	132	535
		%	100%	100%	100%	100%	100%

(χ^2 =78.626, df=24, p<.001)

방송사별 책임소재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χ^2=78.626, df=24,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BS가 청해진(37.1%)를 그리고 MBC(45.2%)와 SBS(32.2%)가 세월호 선원들을 사건발생 책임소재로 지목한 반면, JTBC는 청해진과

선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26.5%)를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로 지목하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JTBC는 지상파 3사 뉴스에 비해 '해경'(13.6%)의 책임소재를 부각시킨 점도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태도와 비교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세월호 보도의 경향성

전체 분석대상 기사들을 각각의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 주제 상위 10개를 분석한 결과, '구조수색작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원&선장' 75건, 사고애도 60건, 사고원인 및 정부사고대처 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4개 방송사 전체 주제 상위 10개

	주제	보도횟수
1	구조수색작업	160
2	선원&선장	75
3	사고애도	60
4	사고원인	51
4	정부사고대처	51
6	청해진해운	40
7	당시 상황	32
8	실종자 가족	29
9	세월호 결함	26
10	학생	20

방송사별로 보도 주제를 재분류한 결과, '구조수색작업'이 분석대상 4개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수색작업' 외 기사주제에 대해서는 방송사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주제의 경우 '선장&선원'이 두 번째로 많았던 반면, JTBC는 구조수색작업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부사고대처'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분석대상인 KBS, MBC, SBS, JTBC의 메인뉴스 보도를 대상으로 기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핵심적인 단어, 그리고 자극적인 단어를 구분하여 핵심단어로 분류하여 상위 15개를 제시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핵심 단어로는 '구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180건), 수색(79건), 침몰(72건) 등의 순이었다[표 7].

표 6. 방송사별 세월호 사고관련 보도 주제 상위 10개

	MBC		KBS		SBS		JTBC	
1	구조수색 작업	46	구조수색 작업	48	구조수색 작업	40	구조수색 작업	26
2	선장&선원	20	선장&선원	12	선장&선원	16	정부사고 대처	25
3	정부사고 대처	18	학생	10	사고 원인	15	탑승객 사연	17
4	청해진 해운	18	사고 애도	20	사고 애도	13	사고 애도	17
5	사고 원인	14	사고 원인	11	학생	10	세월호 결함	16
6	선장&선원	14	청해진 해운	22	사고 영향	8	선장&선원	13
7	당시 상황	11	당시 상황	9	오보	7	실종자 가족	12
8	사고 애도	10	실종자 가족	17	탈출	6	당시 상황	12
9	세월호 결함	10	안전	12	선체 인양	5	사고 원인	11
10	선체 인양	10	정부사고 대처	8	유사 사고	5	교신	9

표 7. 4개 방송사 전체 핵심단어 상위 15개

	핵심단어	
1	구조	180
2	수색	79
3	침몰	72
4	탈출	59
5	가족	56
6	원인	36
7	해경	36
8	선장	29
9	애도	26
10	학생	25
11	선원	24
12	사고	24
13	안타까움	17
14	의문	14
15	인양	13

방송사별로 핵심 단어를 재분류했을 때에도 '구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조'외에 핵심단어로 분류된 순위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의 경우 '수색', '침몰' 등 세월호 사고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JTBC 보도는 '가족', '원인', '안타까움' 등 사고와 관련된 핵심 단어들이 상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방송사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의 핵심단어 상위 15개

	MBC		KBS		SBS		JTBC	
1	구조	50	구조	43	구조	54	구조	33
2	수색	31	침몰	22	침몰	42	가족	20
3	탈출	19	가족	16	수색	40	원인	12
4	원인	14	승객	14	실종	26	안타까움	12
5	가족	11	선장	14	학생	25	해경	10
6	에어포켓	8	선원	11	사고	24	의혹	9
7	침몰	8	조류	11	탈출	23	비판	8
8	교신	8	청해진해운	11	해경	16	수색	8
9	구속영장	7	탈출	10	선장	15	탈출	7
10	인양	7	해경	10	애도	14	결함	7
11	안전점검	6	구명정	8	희생	13	애도	7
12	안타까움	5	승무원	8	선원	13	문제	7
13	의문	5	선체	8	원인	10	상처	6
14	애도	5	정부	8	가족	9	인양	6
15	슬픔	4	물살	8	암초	8	항의	6

VI. 논의 및 결론

재난보도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여 특정지역에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자연적 재해 또는 인위적 재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언론은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유일한 통로로 시청자들이 재난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하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32]. 그러나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한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는 선정성과 비전문성 등 언론보도의 대표적 참사로 불릴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언론의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각 방송사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보도 기사의 분량과 날짜별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월호 보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요 방송사들이 어떠한 정보원을 주로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월호 보도에 있어 각 방송사들은 세월호 사건의 책임소재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보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주제를 분류하여 세월호 보도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 채널 JTBC의 보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관련 뉴스 보도의 양을 줄인 반면, JTBC는 지속적인 세월호 참사 보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윤태진은 JTBC가 세월호 참사를 보도함에 있어 유지한 원칙 중 하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시간이 지나면 시청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청률도 떨어지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JTBC는 세월호 관련 보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33]. 이번 연구결과도 윤태진의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JTBC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과 달리 세월호 관련 보도를 지속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의제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의제를 유지하며 공정한 보도를 실현하는 것인데, JTBC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세월호 관련 의제를 사회적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제화 하는 노력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해결과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함에 있어 분석대상 방송사들은 해경과 중앙사고대책본부와 같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기관의 보도 자료나 정보와 같은 공식적인 정보원을 보도에 활용하기 보다는, 실종자 가족, 민간전문가, 시민 등 비공식적인 정보원을 주로 보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4개 방송사들은 기사를 작성하는데 SNS나 인터넷과 같은 기계적인 정보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현장 취재, 인터뷰 등 비기계적인 정보원을 활용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방송사들이 사건관련자들과 전문가 등 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내용을 보도에 활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보도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선원', '청해진', '정부' 순으로 세월호 참

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방송사별로 책임소재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우 '청해진'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반면, MBC와 SBS는 이번 세월호 사건 발생의 책임이 '선원'들에게 가장 많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JTBC는 '청해진'과 '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공중파 방송사들과 다른 보도태도를 보였다. 특히, 지상파 3사 뉴스에 비해 JTBC의 경우, '해경'의 책임소재를 부각시키고 있어, 지상파와 비교되는 보도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JTBC의 경우 이번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보도를 한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또 다시 유사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34].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주로 사용된 주요 주제는 '구조수색작업', '선원과 선장', '사고애도', '사고원인 및 정부사고대처' 등으로 나타났는데, 각 방송사들은 '구조수색작업'과 관련된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구조수색작업' 이외에 방송사들이 자주 사용한 주제들은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의 경우, '선장과 선원'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JTBC는 '정부사고대처'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JTBC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정부의 사고 관련 책임을 부각시키고, 정부기관의 안일한 사고대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JTBC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과 달리 정부의 사고대처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지상파방송사들과 다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방송사의 메인뉴스에 언급되었던 핵심 단어로는 '구조', '수색', '침몰' 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의 경우 '구조' 외에 '수색', '침몰' 등 세월호 사고 자체에 초점 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반면, JTBC 메인 뉴스의 경우, '가족', '원인', '안타까움' 등의 사고관계자들과 관련된 핵심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들은 사고 자체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반면, JTBC는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들 그리고 사고의 원인규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규는 국내 재난보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재난보도는 필요한 정보제공에 소홀하며, 정확성과 객관성의 부족으로 추측보도가 난무하며, 데이터 중심의 보도보다는 인터뷰 중심의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과도한 속보경쟁으로 인한 선정성과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가 많으며, 피해현장 스케치 보도 등을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권 · 기밀 · 안보에 대해 둔감한 불감증 보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5].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주류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이민규가 지적한 재난보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JTBC의 경우 주류 방송사들의 보도와 달리 재난보도 과정에서 사건 발생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36]. 이와 함께, 재난보도의 경우 과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어 사회적 이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의 경우 JTBC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한 후 완전하게 해결될 때 까지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재난보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방송매체의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재난보도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재난보도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분석대상 범위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방송매체의 보도내용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매체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내용이 실제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언론매체의 세월호 참사 보도가 시청자들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해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보도에 있어 의제설정 및 기존의 의제를 유지하면서 공정한 보도를 실현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이경미, 최낙진,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1호, pp.97-129, 2008.

[2] 김성진, 박경우, "국가재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행태 연구-숭례문 화재사건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3권, 제2호, pp.5-41, 2009.

[3] 백선기, 이옥기,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 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1호, pp.272-304, 2013.

[4]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79-201, 2014.

[5] 김서중, "세월호 참사 보도의 참혹함은 예정된 것," 황해문화, 제84호, pp.280-297, 2014.

[6] 이진로, "세월호 침몰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pp.187-198, 2014.

[7] 최진봉,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광산업, 한국관광정책, 제56호, pp.28-35, 2014.

[8] 한수경, "세월호 침몰 사건에 나타난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pp.216-221, 2014.

[9] 이창호, "세월호 침몰사건을 통해 본 SNS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pp.201-208, 2014.

[10]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79-201, 2014.

[11] 신진원,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 인지, 제21권, 제3호, p.123-143, 2014.

[12] 박경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독자 프레임과 매체 프레임," 스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7호, pp.297-330 2015.

[13] 정수영,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1권, 제2호, pp.56-103, 2015.

[14] 김태원, 정정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pp.199-224, 2015.

[15] 김서중, "세월호 참사 보도의 참혹함은 예정된 것," 황해문화, 제84호, pp.280-297, 2014.

[16] 이진로, "세월호 침몰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pp.187-198, 2014.

[17] 최진봉,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광산업," 한국관광정책, 제56호, pp.28-35, 2014.

[18] 한수경, "세월호 침몰 사건에 나타난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pp.216-221, 2014.

[19] 이창호, "세월호 침몰사건을 통해 본 SNS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pp.201-208, 2014.

[20]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79-201, 2014.

[21]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79-201,

2014.
[22] 신진원,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 · 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 인지, 제21권, 제3호, pp.123-143, 2014.
[23] 신진원,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 · 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 인지, 제21권, 제3호, pp.123-143, 2014.
[24] 박경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독자 프레임과 매체 프레임," 스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7호, pp.297-330, 2015.
[25] 박경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독자 프레임과 매체 프레임," 스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7호, pp.297-330, 2015.
[26] 미디어스 (2014년 5월 27일자), '지상파 3사 제친 JTBC 보도, 신뢰도 1등 선호도 2등'
[27]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3일자), '손석희와 JTBC 기자들의 18,850분'
[28] 기자협회보 (2014년 12월 17일자), '미디어 신뢰성·유용성 JTBC, 공정성 YTN 1위'
[29] 최낙진, "제주지역 방송뉴스의 다양성," 동서언론," 제10집, pp.69-107, 2006.
[30] 이경미, 최낙진,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1호, pp.97-129, 2008.
[31]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79-201, 2014.
[32] 홍은희, "한국재난보도의 과제," 관훈저널, 제131호, pp.26-36, 2014.
[33] 윤태진, "방송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 JTBC 뉴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화과학, 제79호, pp.192-212, 2014.
[34] 박기묵,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9호, pp.134-145, 2016.
[35] 이민규, "재난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관훈저널," 제119호, pp.11-17, 2011.
[36] 최진봉, "텔레비전 뉴스 콘텐츠에 나타난 탈북민의 이미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pp.403-414, 2016.

저 자 소 개

최 진 봉(Jinbong Choi) 종신회원

- 2005년 8월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2008년 9월 ~ 2012년 2월 :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정치경제학, 저널리즘, 국제커뮤니케이션, PR